



4·24 서울 노원 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부인 김미경 교수가 24일 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서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귀환... 여의도 긴장

4·24 재보선 노원병 60.5% 국회의원 당선 부산 영도 김무성, 충남 부여·청양 이완구

새 정치의 상징으로 지난해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4·24 재·보궐선거에서 승리,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으로 돌아왔다. 이에 따라 야권의 정치 지형이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무소속으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60.5% 득표율로 32.8%를 얻는데 그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는 5.7%, 통합진보당 정태홍 후보는 0.8%를 각각 득표하는데 그쳤다.

또 부산 영도의 경우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가 65.7%의 득표율로 22.3%를 얻은 민주통합당 김비오 후보를 크게 따돌리고 승리했다.

충남 부여·청양에선 89.7%가 개표(밤 11시20분 현재)된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후보가 77.3%의 득표율로 17.0%를 얻은 민주당 황인석 후보를

대 전면 등장이 정치적 유행성을 증대시키면서 '안철수 신당' 가능성 등 야권 정계개편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전당의 나아갈 길' 토론회에서 황승홍 국민대 교수는 '아시아문화전당 설립의 법·제도적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기했다.

이날 세미나는 민주통합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과 민주통합당 광주지당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황 교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장기적으로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의 허브로서 콘텐츠 협업을 통해 아시아인의 상호협력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아시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아시아문화전당 설립운영법'을 제정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특별법을 개정할 경우 입법 절차가 용이하지만 한시법이라는 점 때문에 오는 2026년 이후 다른 조항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고 문화전당의 근거 조항만 남게 되는 입법체계의 불합리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문화전당 설립운영법을 제정하면 특별법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부족한 콘텐츠 구축을 위한 논의가 광주와 한국 중심이 아닌 아시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재한 전남대 교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구축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며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병행이 "광주 중심" "한국중심" 등 자칫 빠질 수 있는 문화 패권주의의 뒷안 피하게 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은 복합문화예술기관은 탈중심주의와 탈 장르로 특징지어지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하며, 탈중심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동반성장을 고려, 아시아가 함께 콘텐츠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다문화의 통합과 다양한 문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원활한 콘텐츠 창작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과 김성호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박양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부위원장, 정우탁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장 등이 참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화전당 법인화, 국가지원 법제화 서둘러야”

국회서 '아시아문화전당의 나아갈 길' 토론회 문화전당 설립 운영법 제정도 시급 콘텐츠 구축 논의 아시아 중심으로

오는 2015년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공법상 특수 법인화하고 국가 지원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전당의 나아갈 길' 토론회에서 황승홍 국민대 교수는 '아시아문화전당 설립의 법·제도적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기했다.

이날 세미나는 민주통합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과 민주통합당 광주지당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황 교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장기적으로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의 허브로서 콘텐츠 협업을 통해 아시아인의 상호협력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아시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아시아문화전당 설립운영법'을 제정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특별법을 개정할 경우 입법 절차가 용이하지만 한시법이라는 점 때문에 오는 2026년 이후 다른 조항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고 문화전당의 근거 조항만 남게 되는 입법체계의 불합리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문화전당 설립운영법을 제정하면 특별법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부족한 콘텐츠 구축을 위한 논의가 광주와 한국 중심이 아닌 아시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재한 전남대 교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구축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며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병행이 "광주 중심" "한국중심" 등 자칫 빠질 수 있는 문화 패권주의의 뒷안 피하게 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은 복합문화예술기관은 탈중심주의와 탈 장르로 특징지어지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하며, 탈중심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동반성장을 고려, 아시아가 함께 콘텐츠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다문화의 통합과 다양한 문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원활한 콘텐츠 창작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과 김성호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박양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부위원장, 정우탁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장 등이 참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회 집담회-광주·전남 길을 묻다 ▶관련기사 5면

정부 바라보기 그만, 민관협력 자립발전 나서자

생활속 아이디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 제안 눈길

정부의 영남 중심 경제개발 정책으로 나후의 대명사가 된 광주·전남이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나친 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내 민·관 협력을 통한 '자립 발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양해령 백화포럼 공동대표는 생활 속 아이디어로 '고효율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 호텔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회 집담회(集談會) '광주·전남 길을 묻다'에 참가한 지역 리더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의미하는 정부

를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지금까지 지역발전에 침묵해온 민간분야의 리더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번 집담회도 지역 리더들이 지역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생산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해 자발적으로 나서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원 출신으로 주부이면서 치과의사이자, 사회활동가이기도 한 양해령 대표는 일상적인 삶에서 느낀 아이디어를 제시,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양 대표는 "광주의 1인당 음식물 쓰레기배출량은 전국 최고일 정도로 심각하며, 지난해에만 241억원 을 처리비용으로 쏟아부었다"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설치를 광주시가 예산으로 지원해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환경도 살리고, 시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10만 가구 기준으로 연간 50억원 안팎의 처리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jhucky@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ww.healingfood.me

Therapy 화순
건강한 음식! 맛의 향연!

2013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

Hwasun Healing Food Festival 2013

2013. 5.16 (목) ~ 5.19 (일) [4일간]
장소 :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

■ 분야별 행사 프로그램 (5개분야 68개 단위 행사)

- | 공 식 행 사 | 환영리셉션, 식전공연, 개막식, 축하공연
- | 경연공연행사 | 힐링요리경연대회, 힐링무대공연, 최고의 힐링푸드를 찾아라
- | 체 험 행 사 | 자기진단미로관, 힐링푸드스튜디오, 건강체험관 푸드컨설턴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키드존, 가장 긴 점심식사, 동물농장체험,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 | 전시판매행사 | 힐링푸드, 힐링푸드코트, 감성푸드, 블랙푸드, 탄광음식열차, 힐링푸드 주제관, 힐링가든 산책로 등
- | 부 대 행 사 | 전국 등산대회, 한마음체조경연대회, Book 콘서트 등

■ 주 최 : 화 순 군 ■ 주 관 :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 후 원 :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